

“내 부처 속이지 말고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에 위치한 불갑사(佛甲寺)는 역사서에 기록된 현존 최고(最古)의 사찰이다.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한 인도의 마라난타(摩羅難陀) 스님이 중국 동진(東晉)을 거쳐 백제 침류왕 1년(385)에 영광 광명 법성포로 들어와 모악산에 처음 창건한 절이다. 모든 불교 사찰의 시원(始源)이요 으뜸(甲)이 된다고 하여 불갑사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구랍 22일, 서해안고속도로 상에서 간간히 훌뿌리던 눈발은 고속도로를 벗어나 모악산 골짜기로 들어서자 폭설로 바뀌었다. 1623년 전 '마라난타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摩羅難陀西來意)'을 화두 삼아 기축년 첫 선지식을 찾아가는 길은 미끄러운 눈길 탓에 정산차리며 나아갈 수 밖에 없었다.

조심조심 달려간 불갑사는 모악산이 연출한 눈부신 설경 속에서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마라난타불교대학 사무소 겸 중무소에 들린

후, 염화실로 가는 길목에 부처런히 눈을 쓰고 있는 불갑사 주지 만담 스님께 합장인사를 하니 얼굴 가득 웃음꽃이 피어난다.

조실방에 들어가 고불총림 방장 수산지종(壽山知宗) 큰스님께 삼배를 올리자, 자상한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온다.

“눈 오는데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우선 차 한 잔 들게나.”

큰스님이 직접 제다해 내려놓은 전다(錢茶; 잎을 찌어 만든 차)는 노란 빛에 맑은 향기와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명차였다. 스님은 1975년부터 불갑사에 주석하면서 백제불교 초전가람지를 복원하는 일에 매진하며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생활선을 신앙해 왔다. 기축년을 맞아 미수(米壽·88)가 되신 큰스님은 8년 연상의 사형 서용 스님(조계종 중정역임, 1912~2003)처럼 장수하면서, 언제나 천진한 미소로 선재동자들에게 차별없는 안심(安心)법문을 일러준신다.



수산지종 스님은 1922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3년상을 마친 19세(1940년)에 백양사로 출가했다. 이듬해 법안 스님의 위패상좌가 돼 무전 소임을 보며 강원을 이수하고, 194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고불총림을 설립한 만담 스님을 오랫동안 시봉하고 전법계를 받았다. 1957년부터 원도 신홍사, 무안 개암사, 백양사 주지, 학교법인 정광학원 8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1975년부터 불갑사에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1986년 조계종 원로의원, 2004년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에 추대돼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스님,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정정해 보이시는데, 따로 건강 비결은 없으신지요?

“이젠 늙어서 안 아픈 곳이 없어. 그저 요가 힘으로 살아. 병원 가자고 하면 겁이 나. 돈이 많이 들잖아. 나는 저녁 10시면 잠을 자고 2시 40분에 기상하지. 6시 아침공양 전까지 예불하고 요가, 참선 정진을 하면 시간이 빠듯하지. 20년 넘게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큰 병은 안 생겨.”

-2008년 한 해는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불교계는 이명박 정부의 표방으로 불편한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불교에서는 정상말(正像末) 삼시(三時)라고 해서 정법, 상법, 말법으로 시대를 나뉘. 정법(正法)은 교(敎)와 행(行)과 증(證)이 고루 갖춰진 5백년이고, 상법(像法)은 교와 행은 있으나 증이 없는 1천년이고, 말법(末法)은 교만 있고 행과 증이 없는 1만년을 가리키지. 우리는 말법 시대인 말세에 살고있는데, 스님들은 인과가 있다고 말한 환불 스스로는 인과를 지키지 않는 게 가장 큰 병폐야. 부처가 못필지언정 시기꾼이 돼선 안돼. 자기는 인과를 믿지도 않고 정진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잘 살라고 하면 안돼. 자기를 회광반조(回光返照) 해가면서 남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일러줘야 해. 우리가 받은 게 모두 공업소생(供業所生)이야. 정신 못 차리면 또 다시 윤회하며 업을 짓고 말지.”

-종교편향 사건을 계기로 인재양성을 소홀히 하고 청정 수행기풍을 확립하지 못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은 것 같습니다.

“불법을 모르는 이는 회법을 못해. 고려말 사찰 재정이 국가 보다도 많았던 귀족불교의 폐해를 보고 정도전이 폐불론(佛氏雜辨)을 썼듯이, 불교를 잘 아는 사람들이 회법을 하지. 지금도 사정이 비슷해. 스

님들이 청정하게 살지 못해서 인재를 키우지 못하니 불교를 폄박해도 큰 소리를 못쳐. 자화자백(自稱自責)이니 그들을 나쁘다고 욕할 것도 없어. 우리 스스로 회화를 해나가야 해.”

-나라가 평안해져서 국민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요.

“요즘 한나라당은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 미국인이 시키지 않는데도 영어 몰입 교육을 해야 한다며 난리야.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하고 조선말을 못 쓰게 한 왜놈 앞잡이만도 못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꾼 것도 이승만 장로 대통령을 신앙해 기독교 사상을 널리 퍼자는 의도 아니겠어. 기독교사상은 믿지 않으면 마구니로 몰아 공격하고 불법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 종교 갈등이 일어나지. 권력은 사람 잡아먹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잖아. 부처님 법이 살아나야 국민이 편안히 살게 될텐데...”

부처님이 정반왕 아들로 사바세계에 태어난 것은 중생교화를 위한 거야. 그런데 부처님도 사람 몸을 받은지라 무수한 전생부터 익혀온 습기가 있었거든. 4성 계급의 모순과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출가해서 깨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을 잘 찌라’ 하는 거야. 자성(自性)자리를 깨달아 본래마음을 그대로 옳은 일을 실천공행(實踐躬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개인도 사회와 나라도 평안해지지.”

-결국 안심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공부를 잘 해야 할텐데, 한 말씀 경책을 주십시오.

“자성자리는 형체가 없지만 또한 없는 것도 아니야. 이 자리를 깨달으면 생사도 없고 성주공공(成住壞空)도 없어. 하지만 한 생각 잘못해서 나쁜 행을 하고 과보를 받으며 육도윤회(六道輪廻)를 하니, 이 걸 바로잡아 깨미 헛바퀴 돌듯한 윤회에서 벗어나자는 게 바로 이 공부야.

옛날 공부할 때는 화장실에 자주 안 가려고 먹는

것도 줄일 정도였지. 그만큼 일이 많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참선시간이 소중했던 거야. 포만감이 있으면 혼침에 빠지니까 건강만 유지할 정도로 소식하며 화두일념에 들곤 했지. 그런데 요즘엔 너무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공부하려고 들어. 말해도 듣지 않고 싫어하니, 경책을 안 하니만 못해.”

-만담 스님을 모시고 공부할 때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한국 최초의 총림인 고불총림을 설립(1947년)한 만담 스님(1876~1956)은 조계종의 종조를 태고보우 국사에서 보조지눌 국사로 바꾼 것을 환부역조(換逆祖)라하며 크게 나무라셨어. 보조 선사를 육조(六祖)가 아닌 신수(神秀) 스님 계열로 본 것이지. 내가 행자 때는 경전도 못 보게 하고, 법당에 예불도 못 하게 했어. 일만 시키는 거야. 그때만해도 염불을 배워 환속한 뒤 가짜 중노릇 하는 이가 많았거든. 한번은 예불이 너무 하고 싶어서 법당에 들어갔다. ‘심부름 안하고 뭐하냐?’ 며 혼을 내시기도 하셨어. 계를 받고 비로소 <초발심자경문>을 배우면서 출가생활의 소중함을 느꼈지.”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19살에 출가해서 20살에 계를 받았는데, ‘사람이면 다 싫이나, 사람이 사람 다와야 사람이지’ 하시는 만담 스님 말씀을 그 때는 자세히 해득을 못했어. 나중에야 그것이 바로 ‘참사람(無位真人, 불성을 상징함)’을 말한 것이로구나 하고 느끼게 됐지.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 참사람이 되는 게 부처님 법이지. 총무원장이나 주지 하려고 중 된 거 아니잖아. 마음 밝혀 생각을 초탈하고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공부야.”

-어떤 화두를 받아서 참구하셨습니까?

“만담 스님으로부터 ‘이뭇고?’ 화두를 받은 후 지 금껏 챙기고 있지. 스님은 ‘이뭇고’ 화두를 강조해서 ‘이뭇고 노장’이라고 불리셨어. ‘이 무슨 물건인고?’ 하는 ‘이뭇고?화두는 내게 무슨 물건이 있어서 출고 더운 줄 알고, 짜증 내고 기뻐할 줄 아는지 참구하는 거야. 형체도 없는 놈이 온갖 일을 하는데, 그 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의문을 품는 거지. 우리 마음은 마치 전기와 같아서 형체는 없지만 스위치를 켜면 형광등처럼 빛을 발하거나 기계를 돌리는 등 온

갖 일을 하지.”

-화두 공부하다 보면 꾸욱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뭇고?’ 를 자주 찾아야지. 어디로 가나 찾아야지. 연속으로 화두를 챙겨야 출몰 물길에 이어지듯 내려가거든. 공부가 잘 되면 물길도, 나도 끊어지는 절대 경지에서 견성(見性)이 이뤄지는 법이야.”

“얼굴보고 질병진단 및 예방법” 특강
형상의학강좌

佛記2553年 己丑年 癸亥新年
 새해새날 대비광명 온누리예

‘생긴대로 질병이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얼굴 눈 코 입 귀의 생김새와 빛깔 등으로 현재 미래의 질병은 결정됩니다. 오장육부의 건강상태는 인체의 외부에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얼굴모양이 다 틀리니 내 몸에 맞는 질병 진단과 개선법이 다릅니다.

‘동양철학과 의학의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덕운 큰스님’께서 과거 한의사만이 학습했던 형상의학을 더 쉽게 풀어서 불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많이 동참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내

- 일 시 : 2009. 1. 8(3개월) 매주 목요일 (오전 2시 - 오후 5시)
- 장 소 : 활인정사 법당(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2층)
- 접수기간 : 2008년 12월 26일 - 2009년 1월 6일 까지
- 접수인원 : 선착순 30명(수강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 동 참 금 : 월 10만원
- 문 의 : 02)3487-2311, 010-2376-2389 www.dytv.co.kr

동 양 의 학 방 송 국

제 1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모집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란
 불교 상례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무서비스를 교육받아 장례 관련 업체, 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상가봉사조직 등 운영 및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는 전문직종입니다.

1. 교육기간 : 2009년 1월 13일 ~ 7월 11일(6개월 과정 총 160시간)
 2.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3. 수강인원 : 40명 (등록 선착순으로)
 4. 수 강 료 : 80만원 (교재포함)
 5. 장 소 :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 (조계사 옆)
 6. 신청서류 : 수강신청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7. 강 사 진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리례학과 출신 석·박사

등록후 바로 현재 진행되는 정규반, 통합반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강의를 3번 하므로 편리한 시간에 맞춰 수강하시면 됩니다.

◆ 수료 후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

현재 정규반 : 매주 (화) 오후 7시 ~ 9시 30분, 매월 1, 3주 (토) 오후 4시 ~ 8시
 통합반 : 매월 1, 3주 (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특전 : 1. 2인이상 등록시 각각 10% 할인 2. 상위 5% 이내 성적우수자 취업 보장
 3. 수료 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F.B.A.과정 등록 시 등록금 30% 할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주)불교생활의례문화원 02) 723-0444